

한국여성노인들의 노년기 적응과 노년기 삶의 모습에 대한 질적 연구

How Do Korean Elderly Women Adapt to Old Age?:
Themes and Sources of Meaning in Their Later Lives from Life Stories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강유진

Dept. of Child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Lecturer: Kang, Yoo-Jin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노년기 삶의 모습:
삶의 의미의 원천을 중심으로 |
| II.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 V. 맺는말 |
| III. 노년기 적응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at makes the elderly women resilient in old age and how they reconstruct their later lives. This study used life histories extracted from tape-recorded interviews of 13 elderly women and analyzed key issues focused on how to adapt in old age. Main results are following:

First, emerging themes to maintain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are related to both informants' inner and outer life worlds; subjective reinterpretation of life, feeling rich, family, social activities, overcoming social stigma. With supporting and supplementing one another, these five dimensions are important contributors to better later life. Second, where my informants search for meaning of life in old age is the critical clue of understanding the later life styles. Some of them are still searching meaning of life in roles as a 'mother', while others are finding their sense of worth outside the family or in themselves.

Corresponding Author: Kang, Yoo-Jin, Dept. of Child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San 43-1 Yokkok 2-Dong Wonmi-Gu, Puchon
City 420-743, Korea Tel: 82-32-3403-114 Fax: 82-32-3403-111 E-mail: hangang@hananet.net

* 본 논문은 2002년도 추계 대한가정학회 발표논문임

These results show that the elderly are interacting with themselves and their surroundings in adapting to old age and different life styles according to different sources of life satisfaction manifest the changes among the elderly and Korean society.

주제어(Key Words): 한국 여성 노인(Korean elderly women), 노년기 적응(adaptation to old age), 삶의 의미(sources of meaning), 노년기 생활양식(life style in later life),

I. 문제제기

본 연구는 여성노인들이 노년기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응을 하며 어디에서 노년기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지를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파악해 봄으로써 노년기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노년기 삶의 모습과 적응을 살펴보는 것은 노년기 삶으로의 사회화가 다른 인생전환기 보다 더욱 어렵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인생의 다른 시기와 달리 사회 속에서 노년기 노인들의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삶을 구조화할 만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인생의 동기를 찾고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노년기는 사회와 제도에 의해 덜 구조화되기 때문에, 노년기의 개인은 '역할이 없는 역할'(roleless role)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Burgess, Harris 재인용, 최신타, 김모란 역, 1998: 148).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속에서 노인집단이야말로 가장 창조적이고 적응을 잘 하는 집단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노년기 일상의 많은 시간이 노인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만큼 노년기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는가는 노년기 적응과 연결이 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막상 노인들이 하루 일상을 어떻게 재구조화 하며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는지, 그리고 노년기 변화들에 적응하면서 어떻게 만족스러운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지를 노인 개인의 설명과 해석을 토대로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노년기 적응을 비롯한 노년학 관련 기존의 연구들은 양적 연구방법이 주축이 되어 왔다. 노년기 적응과 삶의 질에 관한 계량적 연구들은(고승덕,

1995; 김미숙, 박민정, 2000; 김태현 외, 1999; 노유자, 1988; 박은숙 외, 1998; 최 현, 1997) 노인의 건강상태, 결혼상태, 거주형태, 연령 등에 따라 노인의 적응과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노년기 적응을 촉진시키는 요인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런데 계량적 연구방법은 대규모 표집을 통한 일반화 가능한 자료로써 인과관계의 범칙성을 규명해내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책을 제안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일상의 활동 이면의 숨은 상징과 의미를 포착하거나 이것들을 충분히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김광익, 1987: 198). 마찬가지로 노인연구에 있어서 노인들의 시각과 사고의 틀을 배제한 채, 연구자의 시각에서 구성된 질문지법에 의한 연구방법은 노인들의 삶을 판단하고 이해하는데 제한적인 일면만을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노년학 분야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연구들이 계량적 연구들에 치중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의 생애사를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은 특히 노인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유리시키지 않은 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역동적인 개인의 노화과정과 적응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노년학 연구에 유용성을 갖는다고 지적된다(Thompson, 1992). 이것은 노인이 '왜 그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였는지'에 관하여 노인의 입장에서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노인들이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와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오경석(2002)은 노인들의 생성감(generativity)

을 생애사를 통해 분석한 바 있다. 즉, 남녀 노인들의 생애이야기를 분석하고 생성감이 낮은 노인과 높은 노인을 비교함으로써 신뢰감, 근면성, 자아통합, 시련의 극복과 자식에 대한 기대와 경험이 한국 노인들의 생성감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을 구성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노인의 건강과 관련하여 몇몇 연구들이(양경희, 1998; 이영희, 1992; 장혜경, 1998) 한국 노인들이 생각하는 건강의 의미와 노후적응양상을 살펴보는데 질적 연구방법을 시도하였으나, 노년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논리에 의한 연구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무엇이 노년기 적응에 중요하며, 노인들은 어떻게 노년기 삶을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질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애사 자료에 토대를 두고 노년기 적응과 관련된 주제를 찾고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노인들의 노년기 삶을 재구성하는데 어떤 개념이 중요한지를 밝히고, 이 개념에 의해 노년기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처럼 노인들이 노년기에 적응하면서 삶을 구성해 가는 과정을 살펴려는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구체적인 적응전략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년기 성공적 적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II.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여성노인들의 생애이야기를 통해 노년기 삶에 대한 노인들의 해석과 의미부여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생애사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생애사¹⁾는 “한 개인의 지나온 삶을 자신의 말로 이야기한 기록”으로 내부자의 관점에서 자기 문화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애사를 통해 이들의 주관적 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유철인, 1990). 따라서 생애사 분석은 현재의 삶을 과거와 유리시키지 않은 채, 노인들이 노년기 삶의 의미를 찾고 적응을 하는데

있어서 노인들의 주관적 경험을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면접노인을 여성노인으로 한정된 것은 노인인구의 주된 하위집단으로서 여성노인의 특성에 주목하기 위해서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추세에 있어서 남녀별 수명격차로 인해 여성인구의 노령화가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앞으로 노화의 문제는 곧 ‘여성의 문제’로 인식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최혜경, 권유경 역, 2001: 24). 증가하는 노인층의 주축을 이루는 ‘여성노인’과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면접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질적 사례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의도적, 혹은 판단적 표집방법에 준하였다. 의도적, 혹은 판단적 표집은 연구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사례를 선택하는 방법이다(최영신, 1999). 구체적으로 면접자 선정은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따랐다. 첫째, 노인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연령을 가장 크게 고려하였다. 연구자가 60대 후반에서 80대 후반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노인들을 만난 것은 20여 년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노인”으로 불려지는 이들이 보이는 이질성과 동질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라 하겠다. 둘째로는 ‘좋은 면접노인’²⁾의 조건에 맞는가 여부이다. 면접을 통한 자료가 생명인 질적 연구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풍부한 양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가는 연구과정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의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노인들이 얼마나 기꺼이 자신의 삶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 할 수

- 1) 일반적으로 생애사(life history), 생애이야기 혹은 인생이야기(life story) 등의 용어들은 같은 의미를 갖는 용어들로써 상호 혼용되어 사용된다. 단지 생애사가 과거의 기록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생애이야기는 자기의 표현이라는 점을 좀 더 강조한다(유철인, 1996).
- 2) 최영신(1999)은 질적 연구에 있어서 좋은 제보자의 조건으로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자신의 의견과 감정 등 자신의 시각을 드러내며, 이것들을 솔직하고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자가 제시한 “좋은 면접노인”의 조건은 이것을 따른 것이라 하겠다.

있는가, 이야기하기를 즐기는 노인인가 등은 대상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면접노인들의 특성은 다음의 <표 1>에 제시하였다. 면접노인의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한 것이다.

면접노인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3명의 여성노인들이며, 이들의 섭외는 개인적인 친분과 주위의 소개, 혹은 복지관과 경로당 등을 찾아가서 이루어졌다. 저소득층 여성노인들은 저소득층이 밀집한 동네 경로당을 연구자가 직접 물색하여 면접할 수 있었다.

면접은 가능한 한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할머니들로 하여금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충실하게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았다. 면접방식은 “요즘 사시는 건 어떠세요?” 혹은 “이제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등 포괄적인 질문에서 요즘 좋은 것, 힘든 점 등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할머니들의 면접상황에 따라 질문의 순서와 내용이 달라졌으나, 현재의 생활을 묻는 것, 과거의 생활을 묻는 것, 기본적인 건강, 경제상태, 가족관계 등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 등 세 가지 측면이 질문의 큰 축이 되었다. 면접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가장 어려웠던 점은 노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들과 유사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즉, 연구자가 ‘면접노인의 말투’에 자연스럽게 맞춰 가면서 질문의 정확함을 의역하여 전달하는 작업이 가장 힘들었다.

면접시간은 한 명당 대략 1시간 반에서 길면 2시간 반 가량이 소요되었으며,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

면접시간은 한 명당 대략 1시간 반에서 길면 2시간 반 가량이 소요되었으며,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

<표 1> 면접노인의 특성

면접노인	연령	학력	결혼연령	자녀수	활동경력	결혼상태	남편직업	거주형태
권필자	85	초등학교중퇴	16	6남매	농업	20년전사별	농업	큰아들 동거
장현숙	69	대졸	25	3남매	약사, 정치인	10년전사별	대기업임원	큰 딸 동거
김향심	69	고졸	20	4남매	특정단체 부녀회 회장, 각종 자원봉사단체 회장	5년전사별	군인	독거
신명실	69	대졸	30대 중	남매	현 종교단체 국제부 활동	유배우	방송직	미혼아들 동거
김순자	67	중학교 중퇴	19	2남	결혼전에는 식모, 식당일, 결혼 후에 구멍가게	유배우	건축업	큰아들 동거
박금술	70	초등4년	19	3남 (1녀 사망)	전업주부	유배우	공무원	단독
이명자	88	글자모름	16	8남매 (1남1녀 사망)	농사, 식모	50여년전 사별	농업	큰아들 동거
김혜순	74	글자모름	20	4남매	농사, 소금장사, 고물장사	33년전 사별	-	독거
강경자	77	글자모름	19	6남매	생선장사	38년전사별	어업	독거
김순이	80	글자모름	17	6남매	농사	29년전사별	농업	큰아들 동거
박영이	78	글자모름	19	4남매	16살무렵 공출로 공장일/결혼 후 과일장사	45년전 사별	한약사	큰아들 동거
신말순	86	초등3학년	17	3남매 (1남사망)	전업주부	사별	공무원	큰아들 동거
이옥희	76	글자모름	18	7남매	어업, 농사	20여년전 사별	어업	큰아들 동거

* 면접노인의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들과 접촉한 경우는 노인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노인의 말문을 열기 위해 한 번 이상의 방문을 가져야 했다. 면접 내용은 녹음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연구자는 면접노인과의 모든 의사소통에 민감성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있어서 녹음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메모, 노인이 속한 환경에 대한 관찰 기록 등을 연구의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질적 연구 방법에 중요한 지침으로 사용되는 토대이론 접근법(grounded theory)을 참고하였다(Strauss & Corbin, 1990). 토대이론 접근법에 따른 질적 연구는 미리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주제들을 범주화하고 개념화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목적에 대한 결론을 귀납적으로 밝히는 방식을 따른다. 본 연구에서도 면접노인들의 생애사를 수집하여, 이 생애사를 토대로 노년기 적응에 중요한 주제와 개념들을 도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료를 정독하면서 구분되는 내용들로 분류하고, 공통적인 이슈로 묶여지는 분류 내용들을 다시 보다 상위의 주제들로 나누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III. 노년기 적응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

주관적인 기준에서 면접노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써 면접노인들의 노년기 적응을 파악할 때, 잘 적응을 하고 있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노인이 있었다. 면접노인들의 생애이야기를 통해 이들이 노년기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노년기에 잘 적응해 가는데 있어서 다음의 여섯 가지 삶의 측면들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재해석과정과 건강, 경제적 풍요로움, 가족, 사회적 활동, 노인에 대한 낙인의 극복 등이 그것이다. 이 여섯 가지 주제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거나 상호 보완하면서 개인이 노년기 삶에서 의미를 찾고 적응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노년기에 잘 적응하는 노인들은 이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인생무대인 노년기에서 자신에게 가치를 발견한 노인들이었다.

1. 재해석과정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허용된 가능성과 제약들 중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레빈슨, 김애순 역, 1996: 91), 노년기 삶을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노인 개인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면접노인들이 노년기를 살아나는데 있어서 스스로 주관적으로 형성한 의식세계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즉, 주관적 의식이란 면접노인들이 노년기 각자의 삶을 기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에 작용하는 개인 내적 자아의 역할을 말한다. 따라서 '노년기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는가'의 문제가 단지 외적으로 형성되고 관찰되는 삶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작용하는 개인의 내적인 작용, 즉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의식의 형성 과정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Clark(1967)는 노년기에 자신과 사회를 재해석하거나 재평가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Kaufman, 1986: 6). 즉,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까지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과정을 통해 삶에 대한 주관적 의식을 능동적으로 형성해 가는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 보다 쉽게 적응한다고 할 것이다. 면접노인들의 경우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가, 즉 어떻게 주관적 의식을 형성하고 있는가에 따라 노년기 삶의 방식과 적응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김순자 할머니는 노년기에 직면한 도전들을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재해석 작업에서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전쟁과 함께 월남하여 온갖 고생 끝에 "남들 사는 만큼" 생활터전을 일구었지만 노년기에 이르러 자신의 삶을 되돌아 봤을 때 기쁜 일이 없었다. 전쟁 때문에 학업을 그만 둔 자신의 한을 풀어주기를 바랬던 큰아들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 남편은 평생 무뚝뚝하고 냉담하다. 또 함께 사는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는 탓에 할머니가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할머니는 복지관 활동을 계기로 자신의

삶의 지평,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서 현재 노년기 삶을 재평가한다. 복지관 활동에 재미를 붙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얻은 할머니는 실망하고 서운했던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킨다. 이에 따라 큰아들, 남편, 며느리에 대한 할머니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졌으며,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일상생활 역시 변화하였다. 할머니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식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며느리를 “돕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다. 남편에 대해서는 주변에 홀로 된 동료들을 보며 무뎠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남편에게서 얻는 “안정감”에 위안을 받기로 하였다. 김순자 할머니는 상황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재해석 과정은 과거와 달리 변화한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위상은 어떠하며, 현실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루어질 수 있는 꿈과 이를 수 없는 꿈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내리는 작업이다. 여기에는 분명 포기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내포되기 때문에 긴장과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 때 긴장과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가는 노년기 삶의 방식을 구성하고 적응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면접노인들은 삶에 대한 태도, 즉 노년기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게 되고, 노인들은 그 관점을 토대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재해석 작업, 즉 주관적 의식의 형성은 면접노인을 둘러싼 객관적인 환경과 상태가 노인들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기준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면접노인들은 과거와 현재의 생애경험을 재해석하고 변형하면서 때로는 객관적 현실의 한계에 직면하여 갈등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뛰어 넘는 저력을 보일 수도 있다.

2. 건강

노인의 건강은 노년기 삶의 만족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Rowe와 Kahn은

성공적 노화를 하는데 있어서 질병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필요요소가 됨을 지적한 바 있다(Rowe & Kahn, 최혜경, 김유경 역, 2001: 60).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그리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고립감이 신체적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조성남, 2001: 246). 이명자 할머니는 노인으로서의 신체적 쇠퇴가 얼마나 자신을 물리적,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늙은 게 귀도 먹고 뺨다구도 말라서, 내가 키가 작았거든, 키가 작아도 손이 통통하니 요렇게 살이 찌고 팔뚝이 그만큼 남았었다. 그런데 요렇게 나 말랐다. 이빨이 없어서 입이 아파. 그래서 흰죽만 한 달을 먹었어...(중략)...나같이 귀도 먹고 알아 듣도 못하고, 인물도 없고 뭐 사다 줘도 안 하고 하니까 나를 누가 좋아 할려고 하느냐. 이렇게 맘이 들고 그려(이명자 할머니).

반면에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면접노인들이 생활의 자신감을 갖는데 밀접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 면접노인들이 생각하는 ‘건강함’의 의미에는 객관적인 질환의 유무보다 ‘거동이 자유로운가’의 여부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몸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일상 활동을 하고 이동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면, 즉 “몸져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본인들은 비교적 “건강하다”, 혹은 “아직은 젊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 움직임이 가능한 면접노인들은 아직 자녀들로부터 독립을 유지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덜 준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안도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재구성하는데 자신감을 얻는 듯 보였다.

또한 노인들의 현재 건강상태는 노인이 살아온 과거 생애경험과 연결될 수 있다.

죽으나 사나 장사해서, 죽어라 일해서, 그래서 파마를 못 해. 이렇게 머리가 아픈게. 이십 오년을 장사만 했어.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파머도 못한다니까(강경자 할머니).

의사가 그러는데 (허리디스크가) 너무 고생해서 그런 거래(박영이 할머니).

특히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홀로 많은 자식들을 키워야 했던 이명자 할머니, 김혜순 할머니, 강경자 할머니, 이옥희 할머니, 박영이 할머니 등은 누적된 불리한 과거 생애경험으로 인해 현재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가족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 막중한 노동으로 평생을 보낸 이들은 현재 거동의 불편함과 여러 질병을 호소하면서, 고생스러웠던 과거의 삶에 대한 회한의 감정을 갖는 듯 하였다.

3. 경제적 풍요로움

면접노인의 경제적 상태는 노인이 일상 생활에서 현실적 선택을 내리고 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측면이 된다. 이러한 경제적 상태는 객관적으로 지각하는 경제적 풍요로움과 주관적인 풍요로움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객관적 풍요로움이란 객관적인 경제적 상태로서 현재 면접노인이 처한 경제적 여건, 즉 면접노인의 월소득, 용돈 등 한 달에 쓸 수 있는 가용 생활비를 말한다. 장현숙 할머니, 신명실 할머니, 박금술 할머니를 제외한 다른 면접노인들의 경우, 개인의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으며 자식으로부터의 용돈에 의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노인의 객관적인 경제적 상황은 사회적 활동을 하는가, 즉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가의 여부와 연결이 되기도 한다.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풍족한 수준의 경제적 여건의 노인들이 가족 밖의 활동, 예를 들면 복지관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오고 가는 교통비 뿐 아니라 사교를 위한 용돈 등의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식·주생활이 빠듯한 노인들은 건강이 허락한다 하더라도 생활비 이외의 지출을 하는데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주관적인 풍요로움이란 면접노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경제적 생활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면접노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활수준은 객관적인 소득액수 보다 자식들의 생활수준, 특히 아들의 사회

경제적 위치에 더 가까운 듯 보였다³⁾. 자식들이 잘 살고 성공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은 노인의 객관적인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노인에게 풍요감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주관적인 풍요감은 면접노인들의 가족관계의 질, 특히 자녀와의 관계의 질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면접노인의 노년기 심리적 자원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들에게 심리적인 풍족함을 주는 것은 용돈의 많고 적음보다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거 노인인 김혜순 할머니는 자식들의 경제사정에 따라 한 달에 5만원도 받고 때로는 10만원, 때로는 20만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데, 김 할머니에게 자식들로부터 받는 생활비는 '많고 적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과의 유대관계를 내포하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다. 비록 넉넉한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먹고 잘 수 있는 방"이 있는 할머니에게 부족한 돈은 아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비를 받을 때 자녀와 한 번씩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실상 돈의 액수가 많을 때 더 좋은 것은 자신에게 돈을 많이 줄 수 있을 만큼 자식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가족

위에서도 나타났듯이 가족, 특히 자식들의 안위는 면접노인에게 물질적, 심리적으로 중요한 자원이 아닐 수 없다. 부계중심의 가부장적인 유교이념이 지배한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살아온 면접노인들에게 가족은 인생의 중요한 중심축이다. 면접노인들

3) Abelmann (1997)은 한국 중년 여성의 주관적 계급지위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한국의 중년 여성이 지각하고 있는 계급지위에는 그 여성이 결혼하기 전 친정 부모와 형제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아들의 사회경제적 위치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아들의 사회경제적 성취가 중년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통해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위치가 모든 사리판단의 가장 핵심이자 삶의 윤리(ethic)이기 때문이다.

최근 오경석(2002)의 한국 노인의 생성감에 관한 연구를 보면, 생성감이 낮은 노인들의 인생이야기의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가 “자식에 대한 실망”, 그리고 이에 따른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회한”임을 지적하고 있다. 면접노인들도 자식과 손자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안정적인 건강하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때, 노년기 삶에서 성취감과 만족감, 자신감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투병 중인 자식을 두거나 혹은 자식의 죽음을 경험한 노인들은 그러한 자식의 불행이 본인의 탓인 양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였다. 신말순 할머니는 몇 년전 둘째 아들을 “앞세운” 후 노년기 삶이 얼마나 무의미해졌는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른 게 아니라 얼른 안 죽어 걱정이지. 좋은 세상이라도 아들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둘째 아들을 앞세웠어요...(중략)...앞에 하나 가고 내가 바싹 늙었어요. 나 이렇게 안 늙었었어요. 아들 죽고는 그냥... 내가 죽는 일만 남았지.(신말순 할머니)

또한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자식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역시 노인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일상 생활에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된다. 권필자 할머니, 박영이 할머니는 가족 속에서 변화된 자신의 위치를 의식하지만, 가족들의 인정과 배려로 가족 속에서 자신의 영역에 만족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 신명실 할머니와 박금술 할머니, 김순자 할머니는 자녀와 남편의 도움으로 가족 외부의 활동을 유지해나가고 있다.

지금도 복지관에 나오는 거 영감님이, 집에서 손주들 학교 갔다 오면 간식 먹여서 피아노도 보내고 컴퓨터도 보내고, 집에서 그렇게 돌봐주고. 학교 갔다 오면 개네들 챙겨서 해 주니까 내가 요즘 나와서 다녀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오지 못하지.(김순자 할머니)

이처럼 면접노인의 중심적 삶의 윤리로서 가족은 노년기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을 재구성해나가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뿐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자원들

의 영향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맥락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사회적 활동

면접노인들 중에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외부 활동을 통해 노년기 삶의 의미를 찾고 적응해 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활동이 면접노인들의 노년기 삶을 구성하는데 기여하는 가장 큰 장점은 “노인이라는 것을 잊게 해준다”는 점이다. 특히 여성으로서 집안의 울타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어려운 시대적 환경을 살아오면서 오로지 가족의 생존을 위한 투쟁에 한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만큼 생활에 활력을 주는 일이 없을 것이다. 김순자 할머니는 복지관생활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보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기 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한국 무용도 하고 노래도 하고 체조도 하고...(중략)...여기 오는게 정말 재미있어요. 하고 싶은 일 하나까. 또 작년에는 여기 민속체조를 77체육관에서 했나? 체육관에 가서 무용을 했거든. 12명이 나가서 했는데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받아서 복지관 이름을 날리고 저희들도 좋고. 그 때 너무 좋았어...(중략)...사는 건 복지관에 오는 것 밖에 없어. 집에 있으면 좀 그렇고.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복지관에 나와서 상도 타다가 복지관에 안기지. 그런데 나가서 그렇게 해서 어디 가서 노인네들이 팔 벌리고 춤도 춰 보고 어디 가서 무용을, 그 사람 많은 데 가서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러나 말이야...(중략)...이제 더 바랄게 뭐 있어. 노인네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난 행복해.(김순자 할머니)

대부분의 면접노인들은 평생 가족의 장에서 ‘어머니의 역할’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노년기 가족에서 자신은 성인이 된 자녀에게 늙어버린 부모이다. 가족을 이끌던 어머니의 위치에서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늙어버린 어머니의 위치로 변한 자신의 모습과 역할, 즉 새로워진 가족에서의 역할에 적응을 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한다.

이 때 노년기에 할머니들이 가족 밖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개인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노인의 의존성을 덜 부각시키기 때문에, 노인은 활동을 통해 쉽게 심리적으로 자식들에게 덜 의존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개인에게 새로운 노년기 가족에 대한 적응방식으로서 하나의 중요한 삶의 대안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들은 할머니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국면을 열어주며, 할머니들이 세상을 보는 눈 자체를 변화시켜줄 수 있다. 구체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신감은 할머니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면접노인들이 속한 가족과 사회에서 만들어주는 사회적 활동들은 이들이 자신의 '살모'를 찾고 긍정적으로 노년기 삶을 살아나가기 위한 개인의 노력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노년기 적응에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6. 노인에 대한 낙인의 극복

면접노인들은 현대 한국 사회에 형성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잘 간파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첫째, 노인을 규정하는 '사회적 연령'에 대한 낙인의 극복이다. 일단 연령이 많다는 것은 할머니들이 삶에서 의미를 찾고 주체적으로 인생을 재구성하는 것을 상당히 위축을 시키는 부정적 요인이 된다. 연령에 따라 면접노인들의 노년기 삶의 양식과 적응에 일관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령이 많아질수록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의 여러 대안들의 범위가 좁아지는 듯 하다. 노년의 면접노인들이 중년기 못지 않게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은 이 면접노인들이 '별 수 없는 노인네'임을 확인시켜주는 '낙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이를 의식할수록 개인적 능력의 범주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노인에게 허용되는 제한된 범위를 의식하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 즉 소극적인

선택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무슨 칠순에 인생이 시작이예요? 인생이 육십부터다, 칠십부터다 하면 웃어, 아이고 미친 소리 하네...(중략) (인생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점? 이거 밖에 더 돼요? 내가 지금 오십대면 5점 다 주겠어. 근데 내가 칠십대니까 3.5점 주는 거죠.(김향심 할머니)

미안하지만 요새 재미있는 게 없어. 재미있다고 보다가... 지금 내 나이가 뭐 재미있는게 뭐가 있겠수까? 안 그래? (중략) 목표라는 것도 없어. 지금 내 나이 (69세)에 목표를 설정해서 뭐 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다 도둑놈이지 뭐야.(장현숙 할머니)

둘째로는 '구식 노인네'의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 면접노인들은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 여성(모성)'에 부여하는 '구식여자', '독한 시어머니'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담스러운 시선으로 간파하고 하고 있으며,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가치 기준인 독립성과 주체성, 미모 등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위축되어 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자식 중에서도 아들의 삶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면접노인들의 모습⁴⁾은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타인 중심적이고 가부장적 사고를 지닌 '전통적 모성'의 전형이 되며, 현대 여성들이 지양해야 하는 모성이기 때문이다(심영희, 1996). 이와 관련하여 면접노인들은 연구자와의 대화 중에 아들과 딸에 대한 생각, 큰아들 혹은 큰며느리에 대한 생각,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답을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대부분 "요즈음 아들, 딸 구별이 어디 있느냐?", 혹은 "딸이 더 낫다", "며느리 시집살이지, 시어머니 시집살이는 안 한다"는 등 사회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면접노인 본인의 솔직한 감정은 복합적인 듯 하였다.

4) 면접노인들에게 "자녀가 몇 명이세요?"를 물어보면 대부분 아들의 수로만 대답하였다. 연구자가 "아드님만 계신가요?"라고 물어보면 그 때서야 딸까지 합하여 몇 명의 자녀가 있는지를 말하였다.

사람들이 나한테 왜 큰아들, 큰아들 하나고 그래. 그래서 좋아서 큰아들이 아니라 먼저 낳아서 큰아들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살아서 오라 그래도 난 안 가. 가난해도...(소리를 버럭 지르며) 그렇게 가란 말 하지 말아라!(이명자 할머니)

부자관계선이 중심이 되는 전통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면접노인들의 삶은 소외되고 외부의 강요에 의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 교육과 결혼에 있어서 자의적 선택이란 생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면접노인들은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부계 가족, 부계 혈연과 구분되는 주체적인 정체감을 형성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존의 관습과 문화를 내면에 내재화시켰던 여성노인이기 때문에, 면접노인들은 충분히 변화를 인식하고 있지만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한 요구에 쉽게 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존성'의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 여기서의 의존성은 가족, 특히 자녀에 대한 의존성에서부터 사회에 대한 의존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강경자 할머니는 오다가다 마주치는 할머니들을 보면 걱정스럽다고 한다. 매일 경로당에서 하는 일없이 놀기만 하는 할머니들을 먹여 살리려고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남성들이 일하다 죽는 것이 안타깝고 미안하기 때문이다.

(주변에) 맨 노인들이여. 노인들은 안 죽고, 젊은 사람들은 돈 벌러 가서 차 사고 나서 죽지 뭐 하다 죽지 맨날 죽잖아. 노인들은 이렇게 가만히 (경로당에) 처박혀 있으니 죽지도 않고...(중략) 나이 들면 죽어야지. 괜히 자식들만 성가시게 하지. 노인들은 살다가 얼른 죽는 게 복이여. 자식들 앞에서 고생 안 시키고.(강경자 할머니)

면접노인들의 '의존성'에 대한 의식은 '노인은 빨리 죽는 것이 복이다'라는 생각으로 연결된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노년기가 연장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년 이후의 삶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 그리고 노년 이후의 삶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에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노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의존성이 부각되는 노

인의 이미지는 노년기를 즐겁게 살고 새로운 인생 단계로서 계획을 세우고 만족을 찾아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회, 문화적 장벽이 아닐 수 없다.

IV. 노년기 삶의 모습: 삶의 의미의 원천을 중심으로

위에서 면접노인들의 노년기 적응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들을 요약해 보았다. 이러한 주제들은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면접노인들이 노년기 삶의 의미를 찾고 적응해 나가는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가'는 노년기 삶을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개념임을 밝힐 수 있었다. 즉 면접노인들은 '가족'과 '활동', '자기자신' 중 어느 것에서 삶의 의미와 만족을 찾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노년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1. 가족지향형

'가족지향형'의 노인은 현재 자신의 존재가치와 삶의 가치를 가족에 두고, 생활의 큰 축이 가족과 관련된 활동에 집중이 된 유형의 노인들이라 하겠다. 모든 면접노인들에게 가족은 중요한 환경과 심리적 맥락이었지만, 가족지향형의 노인은 특히 자신의 삶의 의미를 가족에 두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노인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지향형'은 다시 '연속적' 성격을 띠는 유형과 '불연속적' 성격을 띠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가 일평생 생활의 장이 가족이었고 결혼 이후 개인의 모든 관심사가 가족과 자식이며 현재에도 가족이 물리적, 심리적 생활의 중심축이 되는 경우라면, 후자는 사회 활동으로부터 은퇴 후 노년기에 이르러 생활의 장이 가족으로 변하면서 가족이 중심적인 생활의 축이 되는 경우라 하겠다.

권필자 할머니와 박영이 할머니의 사례는 전자의 예이다. 이 두 할머니 모두 가족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며 노년기 생활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나이 많은 남편과 부부끼리의 정도 모른 채 오로지 농사일에, 자식 뒷바라지 재미로 살아 온 권필자 할머니에게 가족은 과거와 현재 인생 구조의 전부이며 모든 것이다. 특히 권 할머니가 스스로 남 보다 행복한 노인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하고 속 깊은 큰며느리가 있기 때문이다.

큰며느리가 나이가 들고 건강이 좋지 않은 권필자 할머니를 대신해 가족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집안의 중심적 위치에서 '퇴위한' 권 할머니를 따듯이 배려해 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점 때문에, 권필자 할머니는 비록 아무 것도 "주는 것이 없지만" 가족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만족하고 자신의 노년기 삶에서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박영이 할머니는 심한 허리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고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편한 건강 상태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년기 삶의 만족은 가족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있다. 과거의 자신의 역할이 일찍 사별한 남편을 대신해서 자식들의 생존을 지켜주는 것이었다면, 현재의 자신의 역할은 가족 속에서의 상징적 역할, '행운의 여신'으로서의 역할이 된다. 하루 종일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대거나 특별히 눈에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늙고 병든 자신이 여전히 가족 안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믿음에 기쁘다. 특별히 집 안에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모두에게 살아만 있어줘도 고마운 "행운의 여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머니는 건강도 좋지 않고 자식들에게 자신이 귀한 짐이 되는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을 '오래 살아주는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본인의 믿음으로 위로 받고 있다.

반면 장현숙 할머니는 현재 '가족지향적' 인생 구조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 특성은 권필자 할머니의 사례와 구분된다. 위에서 말한 후자의 경우, 즉 '불연속적' 성격을 띤 '가족지향형'이라 하겠다. 장현숙 할머니가 노년기에 '가족지향적' 삶을 살고자 선택한 배경은 오래 전 경험에 있다. 위

낙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약국에서부터 시작한 활동이 지역 사회의 봉사활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정치활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평생을 가족 밖의 활동에 헌신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던 할머니는 큰 딸 결혼식 날 큰아들의 고백에 충격을 받는다. 언젠가는 어머니가 자신들을 돌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여동생이다 성장해서 결혼하게 될 때까지도 어머니의 삶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 실망하였다는 눈물어린 고백이었다. 자식의 그러한 고백에 많은 충격과 함께 이제까지 '헛살았다'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지만, 그 당시 국회의원직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없었다. 장현숙 할머니는 은퇴 후 삶을 가족을 위해 그 동안 못 다한 '헌신'을 다 할 것을 결심한다. '헌신'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식이 필요할 때 달려가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집을 지켜준다든가, 자식을 대신해 손주들의 준비물을 챙겨 준다든가 등의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자식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예스"의 답을 하기로 하였다.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와서 뭘 해 보겠다든가 뭐 그건 욕심이지. 과욕이지. 내 욕심 구 먹어서 내가 무슨 지위를 바란다든가. 내 일체 사회활동 어디 뭐 부르거나 그러면 잘 안 나가게 인제는 슬슬 하나씩 줄이면서 그 동안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거를 그저 좀 최선을 다하도록 마음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글썄 내가 새로 뭘 해 보겠다 그런 건 별로 없어(중략)... 또 그런 면에서 지금 내 자신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 보다는 그 동안 내가 가족들한테 제대로 못 해줬으니깐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개네들을 위해 뭐 도와줄 수 있으면, 하다 못해 집 지킨다든가 애를 봐준다든가, 학교에 뛰어 가서 (손자) 숙제를 갖다 준다든가, 개네들 도와주는 거니깐. 하여튼 그 동안 애들한테 못 해준거, 그거 해주려고...(장현숙 할머니)

다른 어떠한 생활영역 보다는 '가족'의 일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자식으로부터 어떤 기대를 바라지 않고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로 선택한 삶, 그것이 장 할머니가 선택한 노년기 삶의 방식이었다.

이렇게 가족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면접노인

들은 노년기 삶에 있어서 가족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주목하며, 그 것에서 노년기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노인들이다. 이들은 가족원들로부터 따뜻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장현숙 할머니의 경우처럼 가족원들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을 인식하고 있다.

2. 사회적 활동지향형

‘사회적 활동지향형’은 현재 삶의 중심이 사회적 활동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유형의 노인 역시 가족과 관련된 부분, 건강 등 개인과 관련된 부분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노년기 삶의 가치와 재미를 가족 밖의 구체적인 사회적 활동에서 찾는다. 현재 인생 구조의 가장 중심이 된 부분이 가족 외적 활동인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구체적인 사회적 활동을 통해 노년기 삶의 변화에 적응해간다.

신명실 할머니, 그리고 박금술 할머니와 김순자 할머니는 각각 가족 밖의 사회적 활동 속에서 노년기 삶의 의미를 발견한 경우이다. 신명실 할머니는 종교단체에서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박금술 할머니와 김순자 할머니는 복지관 활동 속에서 삶의 즐거움과 활력을 찾고 있다. 처음 시작이 우연한 계기에 의한 것이지만, 현재 이 할머니들은 주도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이끄는 적극성을 보인다.

신명실 할머니는 일종의 자원봉사인 종교단체 국제부에서 활동 중이다. 오랜 시집살이 끝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할머니는 “바로 한 달 후부터” 교회 봉사에서부터 사회활동을 시작한다. 이미 아이들도 많이 자라서 집에서 별로 할 일이 없어진데다가 시대가 변했으며, 건강한 ‘자원’으로서 본인이 뭔가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젊고 기억력 좋고 정말 건강했던 시절, 손해를 봤다”는 생각에 현재의 일은 젊은 시절 못 이룬 꿈을 보상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바빠도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가사에만 매달려 있다면 조금 뭐랄까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기쁘게 활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사활동이라는 거는 너무나 단조롭고 반복이고, 그리고 정말 애들이 대학교 다닐 때까지 엄마의 도움이 많이 필

요했죠. 뭐 맛있는 거 해주고, 옷 깨끗이 단정하게 입혀 내보내고 아이들이 올 때를 기다렸고, 그러나 이제 다 대학을 나왔고 뭐 결혼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러고 있으니깐 뭐 집에서 그렇게 온종일 할 일은 없어요. 그럴뿐더러 시대도 변했고, 또 집에만 있으면 시야가 좁고 또 인제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니까 아직 건강한 거를 감사하면서 뭐가 글썄...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한다고 할까, 인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중략)...(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너 시집살이 하는 동안 참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니 마음을 알아주마, 뭐 이리신 것이 아닌가, 실상 그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나이도 많이 들어서 이렇게 또 활동의 길을, 전공하고 관련이 있는 길로 열어주셨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겠다. 갚아야겠다. 어찌 됐건 그런 은혜랄까? 그런 거 받은 거 같애(신명실 할머니)

박금술 할머니의 하루 일과는 복지관에 나오면서 시작된다. 현재 복지관 총무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의 “선생님”들을 도와서 챙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복지관에서 바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할머니는 그 곳에서의 생활을 통해 “이제 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한 할머니는 현재 복지관 활동을 통해 노년기 삶의 재미를 느끼고 있다.

복지관, 첫째 복지관이 좋아요...(복지관에 다니면서) 봉사를 하니까 참 힘이 나요. 내가 봉사를 할 수 있다. 그런 할 수 있다는 마음... 선생님들도 다 내 자식같고, 내 자식들이 다 저렇게 멀리 가서 내가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는데, 우리 기분 다 맞춰 주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나는 여선생님들은 다 딸 같고 며느리 같고, 남선생님들은 다 아들 같고, 그제 아들 보러 오는 거 같아요. 자식들이 멀리 있으니까.(박금술 할머니)

할머니에게 현재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다면, 자식들과 떨어져 있는 것인데, 이러한 허전한 마음을 복지관의 젊은 선생님들이 위로해 준다. 복지관의 젊은 선생님들이 할머니 자식 또래이기 때문에, 복지관에 나와서 그들을 쳐다보기만 하여도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이다. 총무 일을 맡고 복지관에서

반장 일을 보는 것도 자식 같은 선생님들을 기꺼이 돕기 위해서이다. 가끔 선생님들에게 음료수며 작은 선물들을 사다 주는 것도 할머니가 사는 재미를 더 느끼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이 곳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노인이라는 점을 잊고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자주 느낄 수 있다⁵⁾. 다른 노인들의 이름표와 출석을 챙기고 식사를 안내하는 일 등 할머니가 복지관에서 하는 활동들에서 할머니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할머니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현재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 활동지향형 면접 노인들은 어느 정도 건강을 갖추고 있지만,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특별히 가족 안에서 자신이 할 만한 의미 있는 활동을 찾지 못하였지만, 우연히 접하게 된 가족 외부의 활동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 노인들이다. 이 때 사회적 활동은 허전한 노년기의 삶에 대한 생활의 돌파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은 면접노인들이 한결같이 노인이 되면서 자신이 쓸모 없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우울했던 마음을 사회적 활동을 통해 위로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외부 활동을 통해서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경험을 하는 것은 노인들이 안정과 자신감을 얻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3. 자기중심형

'자기중심형'은 현재의 삶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나'에 집중된 유형을 말한다. 이 유형의 면접노인들은 가족이 더 이상 자신에게 삶의 가치를 주지 않으며, 자신 역시 가족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치가 있고 할 만한 일이 결국 '나 자신'에게 집중된 경우이다. 따라서 믿고 의지하는 자기 자신의 조그만 감정변화와 건강의 변화 등에 매우 민감하면서 가족으로부터 버려졌다는 느낌을 많이 갖는 경우이다. 김향심할머니, 김혜순 할머니, 이명자 할머니, 강경자 할머니, 김순이 할머니 등이다. 이러한 노인들 중에는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삶

에서 심리적, 경제적으로 강하게 홀로서기를 의식하고 그것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이러한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물질적 자원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가족 이외의 삶에서 특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하고 체념을 한 채 우울한 노인들도 있다.

김향심 할머니는 전자의 예이다. 김향심 할머니는 남편의 죽음을 계기로 가족 속에서 자신이 홀로서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면서 생활의 모든 것을 할머니 자신에게 집중시킨다. 김 할머니는 배우자와의 사별 이후 '이제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에 심한 외로움에 시달리지만, 이것을 할머니 자신을 위한 활동에 쏟아 부으며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아직 건강한 몸과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은 할머니의 이러한 노력을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할머니는 주로 젊음과 건강, 외모를 유지하면서, 또한 그것을 확인 받으면서 안도와 위안을 얻는다. 현재 다니고 있는 노인학교는 좋은 위로가 되는데, 그 이유는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시킬 뿐 아니라, '등교'할 때마다 목에 걸게 되는 '학생증'이 마치 할머니의 학창시절을 연상시키면서 다시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김향심 할머니의 생활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 변화와 외적 변화를 민감하게

5) 복지관에서 박금술 할머니와 식사를 하면서 다시 이런 저런 할머니의 생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나에게 "혹시, 지금 나오는 'Hey, Jude'라는 노래를 아세요?"라고 묻는 것이다. "예, 비틀즈 노래이죠. 저도 좋아해요." 나는 얼떨결에 대답하고 복지관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할머니는 자식들을 교육시키면서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이 부러웠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 어깨 넘어로 영어를 배우면서 접하게 된 것이 '팝송'이었는데, 가사를 익히고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자식들과 함께 특히 비틀즈의 팬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이 노래를 들으면 젊은 시절, 아이들을 키우면서 즐거웠던 일들이 떠올라 더욱 좋아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복지관에서는 식사할 때도 즐거운 일들과 추억을 되새길 수 있어서 좋다는 점을 자랑하였다(연구자 관찰 메모 중).

의식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위기감을 완전히 반대 방향의 활동을 통해 극복하려고 한다. '늙었다'는 위기감이 느껴지면 '젊음'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 즉 젊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인 '포켓 볼', '재즈댄스' 등을 하면서 '노화'를 잊고자 노력하고,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쉽게 자신의 중심을 잃고 우울감에 빠지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김향심 할머니에게 이빨이 부러지는 사건은 '나도 이빨 빠진 할머니 신세구나'를 상기시키는 커다란 계기로서 작용한다.

요번에 이빨이 하나 딱 부러지니까 만정이 딱 떨어지는 거 있죠. 초복날 애들이 양념치킨, 닭 있죠? 그 걸 내가 좋아하거든. 우리 큰 딸이 '엄마, 안 계신데 지금 키 갖고 냉장고 안에 넣어 놔오니깐 엄마 갔다 오면 잠 쉬', 그래서 딱 (냉장고 문을) 열어서 하나 딱 무는데 여기(이빨이)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진 이를 여기다(손바닥에다)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 걸 애들한테 알려야 되느냐 혼자 처리해야 하느냐...(김향심 할머니)

김향심 할머니는 이러한 조그만 건강상의 변화에도 쉽게 흔들린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별 수 없는 70대 노인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되며, 그만큼 자신이 현재 얼마나 외로운가를 명확히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향심 할머니의 경우 외적으로 건강하고 활력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내적으로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강하면서 삶에 대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서슴없이 표현한다.

나 다 늙었죠. 의욕이 없잖아요. 하룻밤 자죠. 자기 전에 부처님한테 기도해요. 눈 딱 뜨죠. 아이고 오늘도 무사히 일어나는구나. 그리고선 자꾸 반복이 돼. 잊을래야 잊을 수 없이 아침에 딱 눈 뜨면 나 살아 있구나. 혼자서 자니까. 지금도 라디오를 조그맣게 켜 놓고 자. 그게 아주 습관이 됐어. 영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내 인생 다 된거죠?(김향심 할머니)

반면 김혜순 할머니는 김향심 할머니와 달리 심리적, 경제적 홀로서기를 위한 물질적, 정서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라 하겠다. 김혜순 할머니는 혼자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 김혜순 할머니는 늙으면서 가족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게 된 자신을 발견하고 우울하다. 매일 할머니의 하루 일과는 경로당에서 시작해서 경로당에서 마무리 짓지만, 이렇게 경로당에서 보내는 시간은 할머니에게 무의미하다. 그것은 가족들, 자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한 뒷바라지에 바쳤다. 노름을 일삼고 "사람구실" 하지 못한 남편을 대신해서 네 남매를 돌보느라 허리가 휘어질 대로 휘어진 할머니를 자식들 중 아무도 모시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가득하다. 직접 업어서 유치원까지 데리고 다녔던 손자, 손녀들도 "냄새 난다"고 할머니를 싫어한다.

(옛날에) 얼마나 고생스러웠나. 지금은 아무 저거도 없어요. 그 때는 돈 버는 재미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돈도 못 벌고, 애들이 설마 나 굶기라 하고 나 놀고, 뭐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아무 것도 하고 싶은 게. 내 몸이나 건강하게 있다가 가만히 저녁 먹고 나면 죽는 게 이것이 소원이예요. (김혜순 할머니)

할머니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가족 안에서 더 이상 할머니의 자리, 할머니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서운하지만, 그렇다고 마땅히 가족 밖에서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불편할 뿐이다. 물질적 측면에서 넉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도 원만치 않다. 또한 혼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기에 역부족을 느낀다. 따라서 김혜순 할머니는 자신의 삶에 아무런 대처행동과 의지를 보이지 않는 무기력함을 드러내면서 홀러가는 시간을 바라만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할머니의 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가족들에게서조차 버림을 받았다는' 우울감과 실망감이다.

V. 맺는말

본 연구는 소수의 여성 노인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노년기를 보내며 적응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면접노인들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인 노년기에 레빈슨(1998)이 지적한대로 한시대의 '끝맺음'과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시작'하고 있다(레빈슨, 김애순 역, 1998: 67). 이 과정에서 면접노인들은 삶에 대한 보람과 기쁨, 후회와 회한의 복잡한 감정, 즉 '정한'(情恨)의 감정을 풀어나가야 한다. 노년기에 적응을 잘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는 면접노인들은 이러한 정한(情恨)의 감정을 잘 풀어나가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변화된 노년기 현실에 자신을 잘 맞추어나가는 사람들이라 하겠다. 이들은 변화한 현대 사회 속에서 노년기 개인 자신의 변화 뿐 아니라, 한 평생 자신의 생활의 장이었던 가족의 변화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 가운데서 자신이 만족할만한 위치를 찾기 위해 개인 자신 뿐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 하면서 융통적 자세를 취한다.

면접노인들은 노년기에 적응을 하고 '어떻게 늙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 '재해석과정'과 '건강', '경제적 풍요로움', '가족', '사회적 활동', '노인에 대한 낙인의 극복' 등의 여섯 가지 주제들이 도출되었는데, 이것은 노년기에 적응해나가기 위한 면접노인들의 주체적인 적응전략과 환경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상의 여섯 가지 주제들은 노인들이 유사한 환경에서 어떻게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적응의 양상과 삶의 의미의 원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정리해 보면, 결국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가', 즉 '삶의 의미의 원천'은 면접노인들이 노년기 삶의 모습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삶의 의미의 원천은 '가족'과 '활동', '자기자신'의 세 가지로 나타나며, 면접노인들이 이

세 가지 삶의 의미의 원천 중 어느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는가에 따라 노년기 삶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잘 늙을 것인가를 모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는가, 즉 노년기 적응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다가올 2030년에 총인구 중 65세 이상이 19.3%, 70세 이상이 12.6%, 80세 이상이 3.4%에 이르게 되어, 65세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35%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임춘식, 2001). 문제는 사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노인들이 얼마나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일 것이다.

그러나 노인들은 자신의 나이를 포용하면서 삶의 동기를 갖거나 의미 있는 삶의 규칙도 거의 가지지 못한 채 노년기에 진입하고 살아가도록 기대되고 있다. 노인들에게 새로운 역할에 대한 준비과정과 자신의 삶을 재설계 하고 그것에 적응하기 위한 재사회화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Harris, 최신태, 김모란 역, 1998: 155).

본 연구 결과는 노인들의 시각과 발언을 토대로 노인들이 노년기 삶을 구성하고 적응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노년기에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과 가족, 사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가족은 여성노인으로서 면접노인들의 삶에 각별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여성노인의 삶의 중심축으로써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은 노인들의 최선의 자원으로써 가족구성원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 자라버린 성인자녀와 늙어버린 어머니와의 새로운 관계설정과 변화에 대한 적응노력을 가족원들이 인식하면서 노부모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측면에서도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안내가 필요하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노년기 적응을 위한 개인적 노력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커진다. 예를 들면 복지관이나 자원봉사 활동과 같이 사회가 마련

한 활동(social activities)들을 하면서 노년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회적 활동지향형' 노인들이 매우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이들이 외부의 활동을 통해 가시적으로 자신의 역할과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면접노인들의 표집 범위가 60대 후반에서 80대 후반에 이르는 광범위한 연령층을 포함함으로써, 여성 노인들의 연령별 이질적 특성과 적응방식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 노년기 삶의 질과 적응에 연령에 대한 주관적 의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본 연구결과에서 지적되는 바, 연령대별로 노인들을 나누어 이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 적응해 가는 방식을 좀 더 심층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각기 다른 연령대의 특수한 생애경험과 특성들을 염두에 두고 노년기 적응양상과 삶의 질을 살펴봄으로써, 노인들이 살아온 시대적 경험과 연결한 한국 노인들의 특수한 노년기 양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승덕(1995).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추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광역(1987). "한국사회연구와 인류학적 방법론". 김경동, 안청시 편. 한국사회 과학방법론의 탐색.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태현 외(1999).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II). 한국노년학, 19(1), 61-81.
- 노유자(1998). 서울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은숙 외(1998). 노인의 삶의 질 예측모형 구축-건강관리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8(3), 37-61.
- 심영희(1995). "동양의 전통사상과 한국적 여성철학의 전망". 여성철학연구모임 역. 한국여성철학. 서울: 한울, 9-23.
- 양경희(1998). 노인의 건강신념과 건강관행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경석(2002). 노인의 생성감과 인생이야기. 한국노년학 22(2), 113-129.
- 유철인(1990). 해석인류학과 생애사. 제주도연구 7, 105-117.
- 유철인(1996).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생애이야기의 주제와 서술 전략. 한국문화인류학 29(2), 397-419.
- 이영희(1992). 한국 노인의 건강생활양식.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임춘식(2001). 고령화 사회의 도전. 서울: 나남출판사.
- 장혜경(1998). 한국 노인의 안녕척도 개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성남(2001). "노인의 건강과 가족".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최영신(1999). 질적 자료 수집: 생애사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2), 1-12.
- 최 현(1997). 건강수준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belmann, N.(1997). Women's mobility and identities in South Korea: a gendered, transgenerational, narrative approach.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6(2), 398-420.
- Harris, D. K.(1998). *Sociology of aging*. 최신태, 김모란 역. 노년사회학. 서울: 하나의학사.
- Levinson, D. J. (1996). *Seasons of a man's life*. 김에순 역.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 Rowe & Kahn(2001). *Successful aging*. 최혜경, 권유경 역. 성공적 노화. 서울: 학지사.
- Strauss & Corbin(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SAGE.
- Thompson, P.(1992). 'I don't feel old: subjective ageing and the search for meaning in later life'. *Ageing and society*, 12, 23-47.

(2002년 11월 29일 접수, 2003년 3월 6일 채택)